

통권 20호

안과 의사

Journal of Korean Ophthalmologists Association

2007년 봄



www.eyedoctor.or.kr



대한 안과 의사회
Korean Ophthalmologists Association

김재호 원장님을 찾아서



김재호 원장님께서는 1966년부터 2002년 정년퇴직까지 오랫동안 가톨릭의대의 교수님으로 봉직하다 2005년 5월 송기영, 노제현 두 원장님과 함께 개인 가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

4호선 명동지하철역에서 하차해 하이패리엇 빌딩 8층에 있는 06년 4월에 확장 이전한 명동안과로 향했다. 문을 여니 종합병원의 아담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안과외래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정오가 지난 시각까지 진료를 하고 계셨다. 김 원장님께서는 보통 의사들과 달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과를 졸업하시고 1956년 가톨릭의과대학 본과에 입학하신 후 1960년 제1회 졸업생이 되셨다. 입학성 69명으로 시작하여 졸업 때는 엄격한 유급 방침에 의해 39명이 졸업, 전원 의사고시합격의 기록을 세웠다. 1회 졸업생의 증언을 통해 모교의 역사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외대건립이 추진되다 처음으로 1954년 외예과 모집이 시작되었다. 명동성당 안에 있는 성가기숙사를 의학부 교실로 사용하였고 학교명칭은 "성신대학 의학부"라고 칭하였다. 당시 학교재정이 어려워 몇 번씩 고려대학교로 이전한다는 설이 난무하다 양기섭 신부님의 노력으로 의학부가 재건되었다. 초창기 성모병원은 1935년 일본인 무라카미가 운영하던 "무라카미 병원"을 매입하여 개축공사를 거쳐 1936년 완공되었고 병원의 공식명칭은 1935년 7월3일 "성모병원"으로 결정되었

다. 일제시기와 6.25사변을 거쳐 1957년 명동성모 병원 신축이 시작되어 1961년 완공, 현대식 건물로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초대안과과장인 손정균 선생님은 새 병원 개원 후 개업을 택하셨다. 종로 3가에 위치한 개업장소에서 대학원생 한 명을 위해 매일 걸어오셔서 철저히 강의하신 손 원장님을 생각하면 존경심이 절로 우러난다고 하신다. 그런데 수업시간이 점심시간 후라 가끔 식곤증으로 밀려오는 졸음을 참느라 다리를 꼬집으며 자해를 감행했다고 웃으신다. 손정균 선생님께서는 순 한글 의학용어 사용을 고집하셨다. 불의와 타협을 모르시고 정직하셨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신 분으로 스승님을 회상하셨다. 그 뒤로 2대 과장님은 구분술, 3대 이상욱, 4대 김재호 원장님이 2002년까지 재직하시고 그 후 개업하시기전까지 인제대학교 서울 백범원 21세기안과병원 원장님을 하셨다.

오늘날 성모병원 안과의 이름이 부당한 것은 다른 병원에 비해 각막분야의 많은 연구와 수술의 추진력이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1971년 미다테스의 수술 현미경 워크샵, 문민식, 이상욱, 김재호



1980년 프로그래스에서 에번데교수가 주관한 국제굴절내과수술학회에서 김재호, 크라프-미국인공수정체학회(ASCRS) 장립다, 모브스트파울-미국인과학회회장, ASCRS 러어하는 분



1989년 프로그래스에서 국제굴절내과수술학회에서 최초로 2번째 미국 인과학회 로버트 신스키, 3번째 로센(Olösen)-영국인으로 인공수정체, KK, 굴절수술 유망담지에 편집인



1988년 제4차 국제 백내장, 인공수정체, 미세인수술 및 굴절각막수술 학술대회 처음 국제대회에서, 인공수정체 연구회가 주최

각막이식수술은 구본술 선생님께서 1966년 미국 국방성 병리학 연구소(AFP)에서 1년간 연수하고 귀국하신 후 시작되었고 중앙안 은행도 국제 안 은행 재단의 헨리 김박사와 협의하여 1966년 설치 하셨다. 구 과장님은 각막이식수술의 초석을 놓고 1968년 필동성 심병원 인과과장님으로 이직, 이상욱 신임 과장님이 취임하였다. 김 원장님께서 1970년 미국 보건성 연구원 자격으로 존스홉킨스대 학병원의 워머 안과연구소에서 일 년간 각막분야 연구를 하셨다. 귀국 후 각막이식수술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한편 교육적으로 1971년 마티네츠 교수를 초청하여 수련의를 대상으로 이때 미개척 분야인 수술현미경하 미세안과수술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중앙 안 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안구기증자가 부족하여 안 은행 활성화를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안구기증 캠페인도 벌였다.

1980년 환자가 올 것 같지 않은 강남 여허발판에 강남심심병원이 개원되면서 김 원장님은 초대인과과장과 진료부원장에 취임하였다. 재직 중 1986부터 1988년까지 병원장을 하였다. 이 임기 중 중앙안은행의 보조금을 확보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인과 계는 획기적인 수술의 개척이 있었으니 인공수정체 삽입과 인공각막이 식시기로 돌입한 것이다. 1978년 김재호 원장님께서 초청하여 재미인과의사 신동호 교수님이 인공수정체(Binkhorst iris-clip IOL)를 갖고 와 삽입술을 성모병원에서 시범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술 시도에 자극을 주었다. 주위 인과 의사들은 눈 버린다고 반대와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로 첫 시도한 인공수정체삽입술은 전방에 공기 주입하고 후방렌즈를 삽입하니 공기가 곧 빠져나와 각막내파에 문제가 생겨 각막이식으로 다행히 치료를 종결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정탄물질인 힐톤(Healon)이 개발되어 내피형상이 해결되고 인공수정체삽입술은 널리 보급되었다. 힐톤은 스웨덴에서 제조되었는데 케슬러 구하기가 어려워 증폭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소독할 때 상한 정탄물질이 들어가 며칠 만에 수포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다. 이 증례를 미국인과잡지에 게재하고 디스포자를 케슬러를 폐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였다. 전방렌즈보다 후방렌즈 삽입이 부작용이 적었다. 국내에서 인공수정체삽입술의 시초는 가천의대부속 길병원 신경환 교수님의 무칭 신상순 선생님인데 독일에서 단하임(Dannheim)교수에게 단하임식 인공수정체삽입술(전방렌즈)을 연수하시고 1960년에 국내 최초로 2예를 성공적으로 수술하셨다.

카도나형 인공각막이식수술도 이 시기에 시도하였다. 1970년에 존스홉킨스에서 연수 할 때 본 인공각막이식수술이 도움이 되어 40 여건 수술하였는데 실패한 것은 수술 후 일년이 못되어 각막주위에 궤양이 생겨 인공각막이 탈구되는 현상 때문이었다. 아람 시력이 없던 눈이므로 결국 안구적출 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실명된 눈을 18년 전 수술 받고 지금까지 시력 0.1S 유지하며 안마업에 종사하는 환자도 있다. 그 뒤에 개발된 하버드대학 인과 돌만

알마담

교수가 만든 보스본 1형 인공각막은 탈구율이 낮고 경과가 좋아 2004년부터 수술하고 있다.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안과학회에서 근시, 난시 교정 방사상 각막절개술(radial keratotomy, RK)을 연구한 후 1200여명 수술하였다. 성한 생 눈을 칼로(후에 다이아몬드 칼) 방사상으로 여러 방향을 절개 할 때 심수하면 소용갑이라는 스트레스가 풀려왔다. 그러나 다행히도 빛 변질 의는 극한 상황 없이 지금도 RK 수술 받은 환자가 찾아온다. 난시교정은 계속 각막절개로 수술하고 있다. 1991년 근시, 난시 교정을 위한 엑시머레이저 PRK(광학교정레이저각막절개술, photorefractive keratotomy) 수술이 성공하여 지금은 많이 보급되었다. 2003년 김 원장님께서 개발한 각막편 라식(flap LASIK) 수술은 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은 환자의 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flap LASIK의 논문은 2005년 J.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에 게재되었다. 김 원장님은 돋보기 눈으로는 불가능한 수술을 오래 할 수 있는 장수 수술의사가 되게 도와 준 수술 현미경과 지금까지 수술할 때 떨리지 않는 손에게 감사한다고 하셨다.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김 원장님께서 하신 모든 수술들은 각막분야의 선각자로서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 많은 수술을 집도하신 원장님의 뜻면에는 환자와 함께 수술 전에 기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기도 중에 증자는 안심을 하였고 함께 아편을 하거나 후에 신앙을 갖게 된 환자도 있었다고 한다. 원장님께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하느님이 함께 하므로 자신감이 생기고 종교적 사명감의 성취도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합병증이 생겨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수술 성취도는 약해도 합병증 없이 시력이 잘 나오는 일이 있어 이런 신비한 일은 하느님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수술 전 기도는 모든 수술자에게 권하고 싶다고 하셨다.

김재호 원장님을 탐방하면서 보통 안과전문의가 할 수 없는 많은 수술건수 즉 복내장 10만건, 각막이식수술 2000건, 라식 5000건, 430편의 논문, 전문서적 17권과 교양서적 2권의 저술, 학회와 각 사회봉사단체의 활동, 국제학회의 출석 등 초인간적인 활약을 하신 기적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솟아났을까 생각 하니 갑자기 바빠졌다. 이런 바쁜 생활도 모교를 빛내 2006년 12월에 을학의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뽑혀 감사패와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후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건강관리가 첫째이고 둘째는 모든 것에 희생을 갖고 새로 창조하는 마음으로 견지 말고 뛰어라 한다. 셋째는 오만하지 말고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은사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 그것이 후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전통으로 되는 기본이 된다. 넷째는 금절적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바쁘신 공에도 틈을 내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후려서 소개하면 상형 성심원의 나환자촌이 봉사, 가톨릭 200주년 자선개안수술(1986, 국민훈장명령장 수상), 남산과 세종 라이온즈 클럽에서 두



1985년 인도 뉴델리에서 제10차 아시아 대안광안과학회에서 RK의 시조 러시아의 워드로브.



2006년 11월 라스베거스의 AAO Meeting에서 안자 김재호 원장님의 논문발표 포스터 앞에서



2000년 75주년 합대개안학술대회 4주에서 2번째 리더 백도남 수임교수, 좌에서 4번째 오브리언 교수, 오브리언 교수 역에서 좌.



수술현미경하에서 아직도 손이 떨리지 않고 수술하시는 김재호 원장님



1993년 모바에서 열린 제 25차 국제안과학회 때 인과리시 정부 초청하여 오한 비오르 2세 교황님 경건

료개안수술, 2006년 명동안과 수술팀이 중국 연길에 있는 연변 안 이비인후과병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과 감연술 하였다. 대한의학 협회주관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양의대를 방문하여 안과 수술실을 만들어 수술과 감연술 하고 수술 장비는 기증하였다. 1994년 재단법인 가톨릭안과연구재단을 설립 운영 중 2002년 김재호 원장님의 호를 따서 선산안과연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김 원장님을 포함한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가톨릭대후배 제자와 서울백병원 21세기안과병원의 제자들을 상대로 연구비, 논문 게재료, 외국학회 참가비용과 가톨릭대학원과 인제대학원 안과 전공의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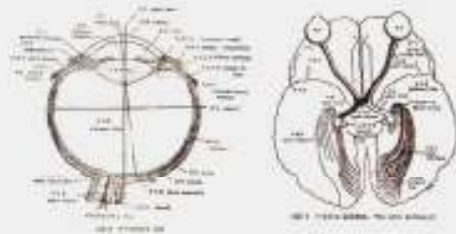
김 원장님께서도 취미생활을 누릴 여유가 있으실까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첫째 취미로 골프를 일주에 한 번 정도 치신다고 하며 실력은 요즘 거리가 줄어 했다 15라고 하신다.

원장님 빼고 모두 음악을 전공한 가족(따님들 바이올린, 첼로) 속에서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는 살이 어려울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 서계숙 사모님(전 서울음대교수)의 전공인 피아노 연주 듣기를 좋아하고 특히 리스트 음악은 웅장하고 박력 있어 선호하신다. 집요하게 묻는 말에 유일하게 연주하는 악기는 하모니카라고 덧붙여 하신다. 사범대하면 혹시 다재다능형 아니실까? 그림에 관해 여쭙었다. 거발 하지 못했지만 소질 있는 스케치 실력으로 사범대 재학중 알바이트르 생물도감의 식물과 동물의 그림을 전부 그렸고 수문사에서 발간한 <안과학>교재의 해부그림 등 삽화를 손수 그렸다고 한다.

두 분 간에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김 원장님의 맞선사연은 좀 특이하였다. 1968년 수도병원병원 재대 무명 은사분의 소개로 주인공 없이 먼저 장모님을 만나시고 장모님이 좋아 어머니 본 딸이



서울구 현안과의원
한명지



<안과학> 교재에 그린 원장님의 해부도.

라고 후에 본인과 선을 보시게 되었다. 그 후 박사 논문 준비 중이라 비학 연락도 못하고 지내다 일주일 후 전화를 하니 매우 반가워하셨다. 그로부터 3~4개월 고재 후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 원장님께서서는 약혼하시며 가톨릭신자가 되었다. 사모님 댁은 대구에서 뿌리 깊은 천주교 집안이므로 김 원장님께서 쉽게 신자가 되었다. 국채보상운동 100주년(1907) 되는 해를 맞아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이 운동의 창시자 대구의 서상돈님께서는 종조할아버지 되는 분으로 임팩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국채가 1300만원(현 시가 3300여억원)일 때 채무국이 빚을 갚은 후 요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민간의 힘으로 갚아나가자고 주장하여 당시 인척소인 대구 광문사의 부사장 서상돈님이 유지들 앞에서 800원(쌀 50kg 한가마 7원)을 내놓자 광문사 사장 김광제님을 위시하여 즉석에서 모금운동에 동참,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을 기념하여 지난 2월21일에 대구 시청 앞 기념공원에 서상돈님의 흉상이 제막되었고 27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공원에 '독립지사 김광제, 서상돈 어록 제막식'이 있었다. 서상돈님은 대구에 천주교 학교인 대륜중고교를 설립하여 교육에도 기여하셨다. 삼일절이 있는 달, 범상하지 않은 가문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학술의 온상인 국제안과학회의 자료 제공에 감사 를 드리고 선구자의 본을 제시하신 원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 원장님의 연구실에는 왕성한 연구 정신과 의욕적인 삶을 상징하듯 늘 푸른 <소나무> 사치 작품이 걸려 있었다.